

# 08 골목골목뮤지컬 빨래

추민주 작/연출

민찬홍 작곡

제작 / 주관: 명랑씨어터 수박

공연 장소: 사다리 아트 센터 네모극장

공연 날짜: 3월 14일~8월 10일

## 등장인물

서나영(여) : 27세. 제일서점 직원

솔롱고(남) : 25세. 몽골에서 온 이주 노동자

주인할매(여) : 69세. 서나영이 살고있는 집의 주인/ 제일서점의 여직원외 1인 2역

희정엄마(여) : 42세. 임미숙, 서나영 옆방에 사는 여자/제일서점 김지숙 외1인 다역

구씨(남) : 42세. 임미숙의 동거남

정돌이(여) :30세. 주인할매(이기조)의 딸. 다리가 없는 뇌성마비 장애인

김지숙(여) :35세. 서점 직원, 제일서점 여사원 중 경력이 제일 높음

서점직원(남) : 29세. 제일서점 직원. 대졸. 근무한 지 3년.

서점직원(여) : 22세. 제일서점 직원. 전문대졸. 근무한 지 3개월.

빵(남) : 51세. 제일서점 사장. 빵은 사장의 별명. 본명은 엄훈성

빵 아들(남) : 26세. 제일서점 직원. 직급은 과장.

낫심(남) : 23세. 솔롱고의 친구. 솔롱고와 같은 공장을 다니면서 솔롱고와 같은 옥탑방을 쓰고 있다. 솔롱고에 비해 한국말이 서툴지만, 활기찬 성격을 갖고 있다.

공익요원(남)

출판사 직원(남)

공장장(남)

슈퍼집 주인(남)

솔롱고가 사는 주인집 사내(남)

주인집 사내의 친구 조씨(남)

## 장소

나영과 솔롱고의 동네는 골목마다 다가구 주택이 들어차 있고, 시장과 가깝다.

이들이 사는 곳은 옥탑과 반지하 방을 갖춘 다가구 주택이다.

나영이 근무하는 제일서점은 신촌에 위치한 홍익서정보다 조금 큰 규모의 서점이다.

## 음악

작품의 정서는 통기타와 하모니카로 표현한다.

## 노트

빨래는 2007년 9월에서 2008년 2월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빨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 노래

#1. 서울 살이 몇 헵가요? 1 - 나영, 동네 사람들

#2.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나영, 제일서점 직원들, 빵 아들

#3. 참 예뻐요- 솔롱고, 공장장, 슈퍼주인, 낫심

#4. 내 이름은 솔롱고입니다- 솔롱고

#5. 빨래- 나영

#6.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솔롱고, 나영

#7. 슬플 땐 빨래를 해- 주인할매, 희정엄마, 나영

#8. 서울 살이 몇 헵가요? 2 -모두

## <참고-추가 예정 곡>

낫심의 한국말 배우기 노래 (1번과 2번 사이)-낫심, 솔롱고

슈퍼주인의 노래 (2번과 3번 사이)-슈퍼주인

주인할매의 노래(5번과 6번 사이)-주인할매

비오는 날의 합창(5번과 6번 사이)-합창

펜싸인회 노래와 출판사 직원의 고충을 담은 노래(5번과 6번 사이)-서점직원들과,  
출판사 직원

웃는 얼굴 예뻐요(7번과 8번 사이)-나영, 솔롱고 듀엣

# 1장

골목길에 트럭이 정차하는 소리

이삿짐 아저씨 목소리      아가씨, 차 오래 대기 힘드니까 얼른 갔다 와요. cue #1.  
나영                              네

토요일 오후. 좁은 골목. 나영은 이삿짐을 옮기고, 주인할매는 나영의 짐을 이리 저리 살펴본다. 퇴근하던 술롱고는 나영이 떨어뜨린 일기장을 주워준다. 술롱고, 이삿짐을 나르는 나영을 바라보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 #1. 서울 살이 몇 헉가요?

(모두)

서울 살이 몇 헉가요?

서울 살이 몇 헉가요?

언제 어디서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하나요?

서울 살이 몇 헉가요?

서울 살이 몇 헉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부부)

서울 살이 10 년, 세 번째 적금 통장 해지

어디 어디 살아 보셨나요?

봉천동, 석관동, 미아리, 옥수동

다니고 다니다 깨진 건 적금통장

그리고 부부금실

(직장 여성)

서울 살이 육 년, 네 번째 직장

최저임금액 육십오만원이면 말 다했죠

생리휴가, 육아휴직 그런 것들은 없어요

짤리고 짤리다 늘어난 건

술, 담배, 그리고 변비

(나영)

서울 살이 오 년, 여섯 번째 이사

낡은 책상, 삐걱이는 의자

보지 않는 소설책, 지나간 잡지

고물 라디오, 기억이 가물가물한 편지

이런 것들은 버리고 와요

버리고 버려도 늘어난

세간 살이, 집세

## 그리고 내 나이

(모두)

얻어갈 것이 많아 찾아왔던 여기  
잃어만 간다는 생각에 잠 못 드는 우리  
당신과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동안  
서울 살이 늘어갑니다  
아아아~(골목에서 나영의 반지하방으로 세트전환)

나영은 이사온 방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다. 주인할매가 나영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주인할매** 전기세는 매달 오천 원씩, 수도세는 두 달에 오천 원씩, 여름엔 이천 원씩 더 내.  
전기장판은 안 되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알자? 물 쓰고 나면 양수기 꼭 돌려.  
인자, 잔금 치러야지. 이달은 없고 다음달부터 15만원씩 내.  
밀리면 보증금 200에서 까는 거여. 잘 알제?  
(잔금을 받고 영수증을 건넌 다음 나영에게 열쇠를 준다)

**나영** 빨래는 어디다 널어요?

**주인할매** 방에다 널든가 옥상에다 널든가. 삭싹 젊으니까 올라갈 만 할거여.  
그러도 속고쟁이는 방안에다 널어 잉. 말 안 해도 알제?

**나영** 아, 예.

나영은 이삿짐을 정리한다. 핸드폰이 울린다

**나영** 어머니? 괜찮아요. 이사 잘했지 뭐... 주인도 개안아요... 가스불도 잠갔고 문도 꼭 잠갔어.  
시집은 뭐 혼자 가냐? 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시집이 그리 좋은 거면 어머니 시집가지, 나보고 가라해요? 또, 공중 전화드래요? 집전화로하지 뭐 또 공중전화로 해요. 가을밤이라 추워요 마카 들어가요.

나영, 배를 깔고 누워 일기를 쓴다.

차 지나가는 소리. 술 취한 아저씨 주정이 창문 너머 들린다.

(나영)

서울 살이 오 년, 여덟 번째 직장  
아니, 아홉 번인가  
연애는 두 번  
차인 게 한 번, 심하게 차인 게 한 번  
사랑하다 남은 건 쓰다 남은 콘돔  
서울 올 땐 꿈도 많았었는데  
삼사년 돈 벌어 대학도 가고  
하지만 혼자 사는 엄마한테 편지 한 줄 못 쓰는  
내 꿈은... 내 꿈은...  
나의 꿈 닳아서 지워진 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는지

## 기억이 안 나요

*돌이의 신음 소리가 들린다. 나영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도 없다. 방문을 꼭 잠근다.*

## 2장

*나영이가 이사 온 다음 날, 일요일 오전. 교회 종소리.*

*나영의 옆집 옥상에는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 솔롱고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낫심이 살고 있다.*

*낫심은 피부색이 조금 진한 필리핀계 노동자이다. 솔롱고와 낫심은 한국어 교본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솔롱고      안녕하세요?  
낫심      안녕하세요?  
솔롱고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낫심      날씨가 좋습니다.  
솔롱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낫심      나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솔롱고      학생입니까?  
낫심      네. 아니오, 공장에 다닙니다.  
솔롱고      잘 했어, 낫심.  
낫심      (웃음)  
솔롱고      자, 다음엔 한글 공부하기가 어떻습니까?  
낫심      한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솔롱고      그래, 어려워. 하지만 너는 아주 잘 하고 있어. 일하기가 어떻습니까?  
낫심      쫓 같습니다.  
솔롱고      낫심!  
낫심      나 한국 말 다 알아.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  
솔롱고      알았어, 그만하고, 어서 가. 늦겠다.  
낫심      솔롱고 낫심 같이 간다. 대학로, 성당, 친구들 많다.  
솔롱고      집에서 쉴래. 길조심하고. 낫심! 술 많이 마시지 마.

*낫심 퇴장. 혼자 남은 솔롱고, 기타를 연주한다.*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가던 길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구씨를 만난다. 옥상에 올라간 나영, 옆 건물 옥상의 솔롱고를 발견한다. 솔롱고와 눈이 마주치는 나영. 솔롱고는 기타를 멈춘다. cue # underscore*

솔롱고      안녕하세요?  
나영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한다)  
솔롱고      날씨 좋죠?  
나영      네.

*(사이)*

솔롱고      어제 이사 오는 거 봤어요.  
나영      네.  
솔롱고      (나영의 표정을 살피며) 몽골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나영      ... 한국말 잘 하시네요.  
솔롱고      여기 온 지 5년 됐어요.  
나영      네.  
솔롱고      뭐하세요? 학생이에요?

나영 아니요.  
 솔롱고 회사 다녀요?  
 나영 ...  
 솔롱고 제가 말 거는 거 싫은가 봐요?  
 나영 아니요. 저 먼저 가볼게요.  
 솔롱고 *(급히 돌아서는 나영을 향해)* 안녕.

*나영, 빨랫줄에 걸린 속옷을 걸어, 대야를 들고 내려간다. 희정엄마, 지하방 입구에서 구씨 속옷과 양말을 빨랫줄에 널고 있다*

희정엄마 허구헌 날 기저귀네. 빨래를 널 때가 있어야지. 널 때가.  
*(나영을 발견하고)* 아가씨가 옆방에 새로 이사 온 모양이지?  
 나영 안녕하세요?  
 희정엄마 나이가 몇 개야?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일해?  
 나영 저, 스물일곱이요. 학생은 아니구요...  
 희정엄마 *(나영의 말을 듣고)* 물어서 뭐하겠어. 해 바뀌면 사람 바뀌고, 하도 바뀌어서 그 때 그 방에 누가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지. 뭐. 그래도, 여긴 주인 할머니가 같이 사니까 깨끗한 편이야.

*주인할매가 골목길에서 주운 재활용 박스를 들고 나타난다.*

주인할매 희정엄마, 아따 오랜만이여. 쟤 저번 달 방값, 저번 달 방값, 이번 달 방값, 그리고 전기세, 물세, 번소세 내야지. 문 앞에 붙여 놓 거 봤재?  
 주인할매 희정엄마, 자꾸 이러면 이 집서 나갈 때 보증금 한 푼 못 건지고 나가는 거여. 옷 장사 한다면서 옷 팔아서 다 어따 쓰는 거.  
 희정엄마 아유, 내요. 낸다니까, 참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주인할매 서방이 찾아왔다 하면 싹박질부터 해대면서, 뭇이 좋다고 또, 빨래까지 해대는지... *(나영에게)* 삭씨도 저기 희정엄마처럼 찾아올 거시기 있으면 말혀.  
 어차피 자주 올 거면 전기세 물세 더 내야지 않것어?  
 나영 걱정 마세요.

*희정엄마가 구씨와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온다. 희정엄마, 옷을 들고 와 주인할매에게 슬쩍 안긴다.*

희정엄마 *(옷을 안기며)* 당분간 좀 봐줘요.  
 주인할매 *(싹 웃으며)* 요것 갖고는 어림도 없재! *(방으로 들어간다)*  
 희정엄마 아가씨, 주인할매가 나보고 어쩌구저쩌구 했지? 자기처지나 내 처지나.  
 참, 아가씨 이름이 뭐야?  
 나영 서나영이에요.  
 구씨 배고파서 죽겠다더니.... 어서 가자!  
 희정엄마 나영이? 이름 예쁘다.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주며)* 동대문에 옷 사러 올 때 한 번 들러. 찾기 쉬운 거야, 우리 가게. 그럼, 또 봐!  
 나영 다녀오세요.  
 희정엄마 *(집을 나서며)* 우리 뭐 먹을까?  
 구씨 돈까스?



희정엄마, 구씨 좋아라고 웃는다.

암전. cue #2

### 3장

나영의 직장, 제일 서점.

직원들이 책을 카터에 실어 나르고 있다.

남직원           애기 들었어?  
여직원1         추석 보너스 없단 얘가요?  
남직원           빵 말이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대. 내참, 가지가지 해요.  
여직원1         승언씨, 근데 왜 빵이에요?  
남직원           아직 못 들었나보네. 있어요, 사장이 눈물 흘리며 빵을 먹는데 햇빛이 자기를 비추고 뭐래나, 새들도 자기한테 와서 힘을 내라고 했대나, 자기도 곧 듣게 될 거야, 사장이 빵 먹으면서 제일 서점 세운 이야기.  
김지숙           조심해. 명절이라 바빠서 실수하기 쉬우니까. 정산 잘못해서 괜히 흠 잡히지 말고.  
여직원1         승언씨, 요새 그 빵 아들, 너무 설치지 않아요? 지가 사장아들이면 아들이지 어찌나 잘난 척은 하시는지, 또 여직원들한테 꺾떡대요. 짜식, 보는 눈은 있어 가지구. 아버지나, 아들이나.  
김지숙           남 얘기 길게 할 거 없어. 아무튼, 바빠도 계산 제대로 하고. 알았지?  
여직원1         (눈치를 살피며)박대리도 나갔는데, 누가 대리로 승진할까요? 김지숙씨, 아니면 김승언씨?  
남직원           나야 뭐, 되면 좋지. 다들 김지숙씨 차례라고 하는데 박대리도 김지숙씨 제끼고 대리 된거잖아. 이번에도 물먹을 걸. 한 직장 오래 다닐 거 못 돼요.

김지숙이 잠시 쳐다보지만, 두 직원은 모른 채 한다.

나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김지숙           왔어?  
여직원1         늦었네요.  
김지숙           이산 잘 했어?  
빵아들         서나영씨, 지각!

(빵역을 맡은 배우와 희정엄마 역을 맡은 배우는 제일서점의 손님역을 맡는다.)

## # 2.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직원 모두)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제일서점으로 무대전환하면서)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여직원) 여름휴가 돈 없어 바다 구경 가기 힘든 아저씨

(김지숙) 추석연휴 시집가란 잔소리 싫어 고향 못간 아가씨

(남직원) 크리스마스이브 애인 없어 종로에 못 나간 청춘남녀, 오 노!

(빵아들)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아저씨,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은 아줌마

(남직원) 시험에 붙고 싶은 고삼, 새로운 침실 테크닉 원하는 부부

(나영) 막연한 인생에 문학의 온기 찾는 소녀  
(김지숙) 아직도 인문학에 힘이 있다고 믿는 교수  
(모두) 내년 운세가 궁금한 사람들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간주 동안,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의 반이 흘러간다. 분주하게 일하는 점원들

(남직원) 책방, 음반, 팬시, 패스트푸드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게 탈이지만  
(여직원) 편히 책 볼 자리가 없다는 것, 너무 시끄럽다는 게 흠이지만  
(빵아들) 책 찾는 일 불편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귀찮지만

(모두)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제일서점 제일서점)  
(모두)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제일서점 제일서점)  
(모두)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제일서점 제일서점)

(김지숙) 어서 오세요  
(여직원)  
무슨 책을 찾으세요?  
(남학생)  
안박사 토익요.  
(남직원)  
2번 코너에 있습니다.  
난 토익책이 싫어요. 무겁거든요. 훔치는 손님도 많죠.  
연말연시 다들 한 권씩 사서 반도 못 보는 책, '토익, 토플'  
어서 오세요

(김지숙)  
어서 오세요, 무슨 책을 찾으세요?  
(취업 재수생)  
공무원 수험서요.  
(김지숙)  
이 쪽 4번 코너에 있습니다.  
난 공무원 수험서가 싫어요.  
잠시 서점을 관둬야 했을 때  
죽도록 공부 했죠.

(여학생)  
윙크 9월 호 나왔어요?  
(여직원)  
난 잡지가 싫어요. 부록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죠.  
찢어가는 거 감시해야죠. 반품처리 해야죠.  
그래도 시간 날 때 만화잡지, 영화잡지 들춰보는 재미 있죠.

(아저씨)

저, 아껴 먹는... 아껴 먹는...

(남직원)

아껴먹는 건강식? 아껴먹는 경제학?

(아저씨)

아껴 먹는...

(나영)

아껴먹는 슬픔

시집은 1번 코너로 가시면 작가별로 정리 되어있습니다.

난 시집이 좋아요.

헤세, 장정일도 서점직원 출신 작가였죠.

나도 서점에서 일하면 작가는 못 돼도 책은 좀 볼 줄 알았죠.

고정희를 좋아해도 하드커버 원태연을 맨 앞에 진열하는 난, 서점 직원

(여직원)

무릎 위 십오 센티미터 타이트한 치마 입고

책장 맨 밑에 있는 책을 꺼낼 때

(남직원)

책에 손을 베일 때

우릴 무시하는 손님 만날 때

(김지숙)

정산이 잘 안 맞을 때

(나영)

연장근무 할 때

(모두)

힘든 우리들

앗

남직원 언니, 빵!

여직원1 빵!

김지숙 빵!

나영 빵!

빵 등장. 서점직원들 사이를 오가며 일일이 간섭하다 자리를 잡는다.

빵 비스마르크가 뭐라했는지 아나?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인터넷 검색한다고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잡담하지마라. 명절 벌어 일년 묵는다.  
재고파악 제대로 하고. 로스 생긴 거 다 물어내라 칼끼다. 복장 단정히 하고.  
(나영에게) 니, 니 일로 와바라.

나영, 사장에게 다가간다

빵 니, 이게 뭐꼬? 여직원 이름표가 이래 빼두름해서 되겠나? (사장의 손이 나영의 왼쪽 가슴에  
붙어 있는 이름표 위에 머물자 나영은 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와?

나영       제가 할게요.  
빵         흠흠

(직원들 모두)  
이런 옛 같은 기분 들 땐 무슨 책?  
(나영)  
책은 무슨 책!  
(빵과 빵 아들)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직원들 모두)  
옛 같은, 옛 같은

빵         제일서점이 상장/상:장/ 기업이 됐다. 이제 구멍가게가 아니란 말이다. 알겠나? 니!

*여직원들 두리번거린다*

빵         니 말이다. *(나영을 가리킨다)* 니, 상장이 뭔 줄 아나?  
나영       ...  
빵         상장이 뭔 줄 모른단 말이가? 개근상 할 때 그 상장/상짱/이 아니란 말이다. 쪼만한 책방부터 시작해서 상장기업이 그냥 된 기 아니란 말이다. 야망은 휴식이 없다고 러튼이 말했다. 흠흠. 상장기업이 됐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 여서 더 나아가야 한다.  
김지숙이는 상품권 관리 잘 하고.  
김지숙     네.

*서점 마감 시간을 알리는 음악과 함께 안내 방송이 나온다.*

*‘제일 서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제일 서점은 고객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빵 아들    저, 다들 추석연휴 앞두고 손님도 많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저...  
*(숨을 길게 들이쐬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씨, 아빠는 이런 걸 나 시키고 그래요.

*여직원들의 수군대는 소리 ‘재 왜 저래?’*

빵         뭐하노, 이 짜숙아.  
빵아들    아시다시피, 가을인데 오히려 책 판매량이 톡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특정 품목들을 세일하겠습니다. *(한숨)* 내일부터 매장 오픈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각 세일 품목들에 대한 예상 판매량을 잘 설정해서 발주를 제 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만 아빠한테 욕먹는단 말이에요.  
빵         제가 눈물을 톡톡 흘리가면서, 빵을 먹어가면서 이 서점을 세운 지 30년 만에 최대 위깁니다. 이 위기를 이기냅시다. 제가 한창 어려울 때는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콧 죽어 빠리아겠다는 심정으로 한강 앞에서 빵을 씹고 있으마, 햇빛이 나를 짹 비추는데, 어디서 새 한 마리가 날아 와가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빵아들    아빠! 한강에서 빵 먹은 이야기 좀 그만해.  
빵         이 자숙이, 아버지 말씀 하시는데... 흠,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제 2의 아이엠에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합심해서 일합시다.  
남직원 네!  
빵 참, 그라고 이번에 인사이드는 없다.

*빵과 빵 아들 퇴장*

남직원 *(여직원에게)* 내말이 맞지?  
여직원 김지숙씨 물먹을 거라 그랬지, 승진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남직원 그게 그거지. 그나저나, 허구헌날 연장근무라니. 내가 여기를 관두던지 해야지...  
여직원 *(서점을 나가다 말고)*빵! *(남직원, 빵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투덜댄다.)*  
김지숙, 나영 빵!  
빵 *(남직원의 머리를 쥐어박으며)*이 문디자숙! 그래 일하기 싫으마, 나가라 이 자숙아! cue #

(제일서점 직원들)

옛같은, 옛같은

옛같은, 옛같은

옛같은

옛같은

옛같은

암전.

## 4장

늦은 밤. 동네 슈퍼 앞. 솔롱고와 낫심이 공장장과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공장장**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월급 밀린 건 내가 사장한테 이야기 잘 해 뒀으니까 담달에 한꺼번에 줄 거야. 경기가 나빠. 공장 문 닫는 데가 어디 한 두 군데라야 말이지. 여기만한 데 없어. 너희들도 알지? 힘들다고 껴피우면 안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돈 벌어 고향 가려면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꼭 참아, 알아듣지? 머니 있어야 되잖아. 머니. 그래야 고향계신 부모형제 먹고살지. 안 그래?

나영 등장. 퇴근길, 나영의 손에 만화책이 여러 권.

**솔롱고**        안녕하세요?  
**나영**            네.

나영, 슈퍼로 들어간다. 낫심, 솔롱고를 보면서 웃는다. 솔롱고, 낫 놓고 나영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공장장**        (솔롱고의 표정을 살피며) 이 자식 너, 누구야?  
**솔롱고**        옆집 사는 여자요.  
**공장장**        한국여자 좋아했다간 둘 다 망고생이야. 불법체류자 신세로는 혼인신고 하기도 어려워.  
**낫심**            안산에서 일하는 내 친구 하심, 같은 공장 일하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 딸 있어요.  
**공장장**        고향에 돈 부쳐주고 나면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애들은 낳아서 어쩌자는 거야!  
**솔롱고**        하심 아이 좋아해요. 하심 돈 많이 벌어 카트만두 돌아가요. 그 땐 아이 더 많을 거예요.  
**공장장**        카트만두고 찐만두고 간에 단속 조심해. 단속반이 공장까지 쳐들어오는 판인데 괜히 니들끼리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그나저나 너희 둘 다 연수기한도 지났는데 어쩌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제 한국말도 잘 하고 일도 꽤 쓸만한데 내보내라니...

나영이 슈퍼에서 물건을 사서 나온다. cue.#3 나영과 솔롱고 인사를 나눈다.

**슈퍼주인**      아가씨, 만화책 두고 갔네  
**나영**            고맙습니다.  
**낫심**            (나영이 쪽을 보며) 예쁘다.

## #3. 참 예뻐요

(솔롱고)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가을 밤 잠 못 드는 사랑 준 사람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준 사람  
참 예뻐요  
이런 내 맘 아나요/아나요(공장장, 낫심, 슈퍼주인)  
참 예뻐요  
나와는 다른 사람/뚜비뚜비뚜비두(공장장, 낫심, 슈퍼주인)

(낫심)  
라라라라~

솔롱고, 나영의 뒤를 따라가다 나영이 집으로 들어가자 아쉬워하며 자신이 사는 옥탑으로 올라간다.  
솔롱고, 자신의 옥탑에 날아 온 나영의 빨래를 발견한다.  
나영이 옥상에 올라온다. 나영은 솔롱고가 자신의 빨래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솔롱고는 나영이 있는 쪽으로 팔을 뻗어 빨래를 건네주려고 한다.  
나영이 아슬아슬하게 빨래를 건네받는다.

나영            고마워요.  
솔롱고        (웃는다)

사이.

나영            몽골에서 왔다고 했죠?  
솔롱고        네. 몽골에서 왔어요.

사이.

#### #4. 내 이름은 솔롱고입니다.

(솔롱고)  
어릴땐 움스쿨 호수 근처에서 양을 치고 살았어요.  
움스쿨은 맑고 깨끗한 호수란 뜻이에요  
울란마토르에 나와서 대학교를 다녔죠.  
울란마토르는 몽골 서울이에요.  
러시아문학 공부했어요.  
나도 공부하고 동생도 공부하고 싶은데  
돈 필요했어요.  
한국에 가면 돈 벌수 있다 해서 여기 왔어요.

내 이름은 솔롱고스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몽골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르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나라  
무지개처럼 꿈을 쫓아 여기 왔어요.



내 이름은 솔롱고스  
사람들은 나를 솔롱고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들처럼 세 글자로 솔롱고 하고 부르죠

내 이름은 솔롱고  
한국사람 만났어도,  
젊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닐츠 산다 바야르타미 바미나

나영           타닐   바... 바미나?  
솔롱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몽골말로 타닐츠 산다 바야르타미 바미나  
나영       (웃음) 저, ... 저는 강릉에서 왔어요. 거기, 강원도. 시골.

*사이*

나영       몽골 사람들은 빨래 어디다 널어요?  
솔롱고       몽골 사람들 곁에 살아요. 하얀 천막. 빨래는 겔 과 겔 사이 줄 걸고 널어요.  
나영       거긴 넓은 풀밭이라 빨래가 잘 마르겠네요. 빨랫줄도 넉넉할 테고, 이런 옥상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사이)* 옥탑방, 반지하 같은 것도 없겠죠?  
솔롱고       네.  
나영       내가 살던 시골에도 이런 방은 없어요. 서울, 참 못됐죠?  
솔롱고       서울 못 된 짓 많이 해도 몽골 보다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오고 싶어 해요.  
          *(사이)* 겔보다 옥탑방 많이 춥고 많이 덥지만, 여기 옥탑방, 하늘과 친해요.  
          우리도 친하게 지내요.  
          *(사이)*  
솔롱고       내 이름은 솔롱고입니다.  
나영       (웃으며) 내 이름은 나영입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내 말을 뭘로 아는 거야' '내가 너하고 사는 게 아닌데' 등등*

나영       안녕히 계세요.  
솔롱고       타닐츠 산다 바야르타미 바미나  
나영       타닐츠 산다 바야르타미 바미나

*나영은 빨래를 들고 급히 내려간다.*

*희정엄마와 구씨가 싸우는 소리가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동네사람    잠 좀 잡시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또, 어느 집구석이야!

*희정엄마는 구씨가 던진 세숫대야와 함께 방문에서 밀려 나온다.  
나영과 주인할매가 희정엄마 방문 앞에 서 있다.*

**희정엄마** 난들 너하고 이러구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구씨** 그만해, 이년아!  
**희정엄마** 내가 보증금 이백에 월 십오만 원 하는 방이 뭐가 좋다고 너 같은 새끼랑... 아이고, 아이고!  
**구씨** 아가리 닥쳐, 안 닥쳐? *(구씨가 또 물건을 던진다)*  
**희정엄마** 그래 죽여, 죽여 보라고. 차라리 죽자!  
**주인할매** 이봐, 구씨! 구씨! *(나영과 주인할매는 물건을 집어든 구씨를 붙든다)*  
 시방 몇 신디 요로코롬 싸우고 지랄이여. 동네 사람들 잠 다 깨우고 말이여.  
**구씨** 그러니까, 그냥 합치자고. 내 새끼, 네가 키우면 네 새끼고 내 부모가 네 부모지.  
**희정엄마** 그게 어째서 내 새끼야? 나, 내 새끼도 싫다고 버리고 나온 년이야.  
**구씨** 혼자 사는 과부가 흠애비 자식 좀 키우면 안 되냐?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너랑 이러고 살 붙이고 산다, 내가. 이 씨팔, 우 씨팔... *(주저앉아 운다)*  
**주인할매** 아이고, 아이고, 요 화상 좀 봐. 밥 대신 욕만 쳐 먹는 아가리 구신이 붙었네.  
 구씨, 이봐, 구씨! 술 많이 자셨네. 이 집엔 자주 오도 안 하믄서 왔다 하면 싸움질이여 싸움질이. 희정엄마, 구씨 델꼬 들어가, 얼릉. 동네 사람 그만 깨우고.  
**구씨** 씨팔, 혼자 사는 과부 불쌍해서 같이 살자는데...  
**희정엄마** 누가, 누가 불쌍해! 가, 가서 네 새끼들하구 잘 먹구 잘 살어.  
**주인할매** 아따 이 사람들이, 이럴 거면 방 빼! 들었어? 방 빼라고, 희정엄마!

울던 구씨와 희정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자 조용하다.  
 나영의 맞은편 방에서 소리가 난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다.

**주인할매** *(나영에게)* 인자 그 쪽도 언능 들어가 자.

주인할매는 소리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꼭 닫는다. 소리가 곧 그친다.  
 나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사이.

**구씨목소리** 미숙아!  
**희정엄마목소리** 왜?  
**구씨목소리** 미숙아!  
**희정엄마목소리** 왜 자꾸 불러?  
**구씨목소리** 우리, 돈 벌어 보증금 한 오백에, 아니다. 보증금 한 팔백에 월 이십 하는 데로 이사 가자.  
**희정엄마목소리** ... 어느 세월에.

암전. cue #5.

## 5장

나영의 휴무일 낮. 나영은 빨래가 담긴 대야를 들고 방문을 열고 나와 옥상으로 올라간다. 빨래를 낸다.

### #5. 빨래

(나영)

둘둘 말린 스타킹 아홉 켤레  
구겨진 바지 주름 간 치마  
담배 냄새 났던 티셔츠  
떡볶이 국물 뿜어낸 하얀 블라우스  
발 꼬랑내 나는 운동화 밑창  
머리 냄새 묻은 베개 호청  
손 때 묻은 손수건

난 빨래를 해요  
오늘은 쉬는 날  
가을 햇살은 눈부시고  
바람이 잘 불어  
밀렸던 빨래를 해요.

빨래가 바람에 마르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엄마 생각...  
엄마랑 같이 옥상에 널었던 빨래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빨래를 다 낸 나영은 솔롱고가 사는 옥탑방에 널린 옷들을 바라본다.  
나영은 다시 지하로 내려온다.  
공익요원, 서류봉투를 들고 등장.  
바람에 떨어진 흰 기저귀 빨래를 주워 들고 반지하로 내려온다.

공익요원 (주인 할매의 방문을 두드리며) 이기조씨! 이기조씨!  
(나영을 보고) 여기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나영 잘 모르겠는데요.  
공익요원 나 참! (대문 밖을 향해) 이기조씨이!

공익요원은 주인할매의 방문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다.

공익요원 정둘이씨! 정둘이씨!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영 거기 누가 살아요?  
공익요원 답답하네. 이 집에 사는 사람 맞아요? 서류 보니까 여기 이 방에 20년도 넘게 살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 몰라요?  
(방문을 두드리며) 정둘이씨! 정둘이씨! 계시면 대답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호구조사 나왔어요. (사이) 대답할 리가 없지.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공익요원 이렇게 바쁠 때 할머니 어딜 간 거야? 정말 이 방에 반토막으로 사는 사람 본적 없어요?  
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주인할매가 빈 박스를 주워 들고 등장. 나영을 밀치고 공익요원에게 달려든다.

주인할매 (들고 온 빈 박스로 공익요원을 때리며) 반토막이라니, 반토막이라니 이 놈아!  
네 놈이 저러구 살아가는 사람 댜을 알면 이 놈아 고로코롬 말 못 현다.  
공익요원 아니 내가 뭐 말 잘못했어요?  
주인할매 똥린 주둥아리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면 되는 줄 알아, 이 놈아. (나영이 말린다)  
공익요원 그럼, 멀쩡히 사는 사람 방문은 왜 잠그고 다녀요?  
(주인할매는 때리다 멈춘다. 사이.)  
공익요원 장애인 재등록 기간이에요, 할머니. 정둘이씨, 안에 계시죠?  
주인할매 니 말대로 반토막 반송장 못 뉘쳐서 산다, 이 놈아!  
공익요원 확인할 수 있게 방문 좀 열어주세요.  
주인할매 (방문을 열어준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니 눈구녕으로 봐라, 이 놈아!  
공익요원 왜 때려요? 말로 합시다. 예?

방안에는 허벅지 아래로 다리가 없고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할매의 딸 정둘이가 누워 있다.  
문을 열자 방안에서 냄새가 확 끼친다.

동사무소직원 아휴~ 냄새!  
주인할매 (공익요원을 밀어 쫓으며) 대가리 돌리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이놈아.  
살아있응게 싸는 거여, 싸니까 냄새도 나고. 니는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이놈아, 산 것들은 다 지 냄새 풍기고 사는 거야.  
공익요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곧 동사무소에서 확인 서류가 날아 갈 거예요.  
주인할매 기저귀는 주고 가, 이놈아!

공익요원은 들고 있던 기저귀를 주인할매에게 건네주고 황급히 퇴장.  
사이.

**주인할매**      이러구 사는 거 다 봤응게, 내 인자 삭시 눈치 안 봐도 되겠네. cue #6.

주인할매는 방문을 열어 둔 채 기저귀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나영 방안을 살펴보다가 다시 빨래를 가지고 나오는 할머니랑 마주치자 방으로 급히 들어간다.  
주인할매, 딸의 이불을 꺼내와 빨래를 하려고 고무통에 담근다.  
빨랫줄에 널려있는 희정엄마의 빨래를 걸어서 갠 다음 희정엄마의 방문 앞에 둔다.  
(무대에 주인할매 혼자 남아 있는 동안,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 6장

*비가 오는 날 아침, 마을버스 정류장. 솔롱고는 정류장 옆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를 한다. 나영 등장.*

**솔롱고** 네 달입니다. 아니요, 세 달 아니고 네 달입니다. 저 번 달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돈 주세요. 갑자기 공장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돈 못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낫심은 아파도 병원 못가요. 공장장님! 공장장님! 참고 일하라고 해서 참았는데...  
돈,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자식, 개자식, 개자식

*솔롱고는 공중전화부스를 발로 세게 찬다. 솔롱고, 나영과 마주친다.*

**나영** 안녕하세요?  
**솔롱고** 아, 네.  
**나영** 개자식은 좀 그럴다, 개새끼도 있고, 심새끼도 있고 또...  
**솔롱고** ...나 괜찮습니다.  
**나영** 나도 괜찮습니다. *(나영, 솔롱고 같이 웃는다)*

*주인집 사내 등장*

**주인집 사내** *(솔롱고를 발견하고)* 어이,  
**솔롱고** 안녕하세요?  
**주인집 사내** 방세 내는 날인 거 알지? 밀리면 방 뺄 때 돈 못 받아.  
**솔롱고** 아, 예.

*마을버스가 도착하며, 주인집 사내에게 물을 튀긴다.*

## 7장

6장과 같은 날

팬 싸인회를 알리는 안내방송 '오늘도 제일 서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여니의 팬 싸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1층 문학코너에서 진행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귀여니의'

제일 서점, 김지숙이 책장에 책을 진열하고 있다. 출판사직원 등장.

출판사직원 오늘 사장 봤어요?

김지숙 못 봤는데요.

출판사직원 오 개 월짜리 어음 두 장 끊어주는 거야. 이 거 말이 돼? 내가 김지숙씨 하고 엄사장 안 지가 십오 년이야. 오늘 결제날인 거 자기도 알지?

김지숙 아이엠에프 때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출판사직원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김지숙씨, 제일서점하고도 인연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일 서점 돈이 사채시장에서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김지숙 그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거래 끊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출판사직원 다섯 달 짜리 어음! 웃기지 말라 그래. 현금 아니면, 출협이나 유통 쪽은 책 싹 다 걷어가는 거 알지? 엄사장 발품 팔아가면서 출판사 문 두드릴 때가 엇그제 같은데. 허 참.

김지숙 (돌아서는 직원을 향해) 서상원씨! 서상원씨!

출판사직원 김지숙씨! 여기서 헌신한다고 알아줄 빵이 아니야. 일찌감치 댄 직장 알아보라고.. 하긴 벌써 15년이니 어디가기도 좀 그럴겠다.

김지숙 ...

출판사직원 퇴장.

나영 등장. 나영은 회사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다.

나영 언니! 언니 차례야.

김지숙 뭐가?

나영 왜이래. 지금 귀여니 팬 싸인회 하고 있잖아.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 빵이 난리 칠까봐 손님들 봐가면서 우리가 세 번씩 싸인 받기로 했다고.

김지숙 응.

나영 언니 무슨 일 있었어?

김지숙 년 무슨 좋은 일 있니? 요새 웃고 다닌다. 연애하니?

나영 (웃으며) 아니. 나, 언니한테 할 말 있다. 옷 갈아입고 와서 다시 해 줄게. (다급히 돌아서며) 빵!

빵(엄사장)이 매장에 들어선다. 나영은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빵과 지숙을 살핀다.

빵 (김지숙에게) 서과장 다녀갔나?

김지숙 주문 안 받겠대요.

빵 출판유통 안 있나.

김지숙 저번 달에도 어음 끊어 주셨다면서요. 이번 달까지 그러시는 건 좀...

빵 돈이 있어야 주지, 내가 은행이가.

김지숙 매출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어음 때문에 거래를 끊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엠에프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빵 김지숙이, 그만해라.

김지숙 제가 생각하기론...

빵 (김지숙의 말을 끊고) 네가 사장할래?. (나영을 보고) 니는 지금 옷이 거기 뭐꼬?

나영 팬 싸인회가 있어서 다들 돌아가면서 사복 입고 싸인 한 번씩 받는 중...

빵 (말을 끊으며) 시끄럽다. 퍼뜩 옷 갈아입고 니 자리 가라? 정신들 안 차리재?

내가 이참에 싹 다 물갈이 할끼다. (나영은 그 자리를 피한다)

김지숙 회사 자본금을 사채 시장에 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서점 확장하신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빵 니, 입 안다무나.

사이

빵 몇 년 됐지? 고등학교 겨우 마치고 여 온 지 얼마나 됐냐고?

김지숙 아이엠에프 때 잠시 그만 뒤에 했던 걸 제외하면 십오 년입니다.

빵 옷 벗어라

김지숙 네?

빵 벗어라

김지숙 사장님을 믿고, 여기 이 책을 믿고 보낸 세월이 십오년이에요.

빵 그만하면 니도 할 만큼 했다.

김지숙 고등학교 겨우 마치고 온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셨죠. 책을 이렇게 싸라 그래야, 손님 붙는다. 책을 사랑해라, 네가 사랑한 책이 손님을 부른다.

빵 안 그래도 여기 4번 코너 물갈이 할라랬다.

김지숙 이번에도 날 잘랐다고 후회하고 다시 내 손을 붙잡고 울어도 그 땐 안돌아와요.

빵 니, 지금 날 헐박하는 기가. 당장 옷 벗어라. 당장 그 옷 벗어놓고 나가라.여 서점에 일 할라 카는 젊은 가시나들 많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나영이 책을 떨어뜨린다.

김지숙 후회 하실거예요.

빵 후회? (나영을 가리키며) 야! 거기 니, 니가 오늘부터 여기 말아라!

나영 네? 저, 법서는 잘 몰라요. 그리구요, 사장님...

빵 뭐?

나영 이건 부당해고예요.

빵 니는 또 뭐꼬? 둘 다 옷 벗어라, 알았나?

나영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빵 이기 어디서 대드노? 니 미쳤나?

나영 반말 좀 하지 마세요.

김지숙 나영아, 그러지마.

나영 언니, 왜 그래? 정말 이대로 관둘 거야?

김지숙 나영아, 제발!

엄사장(빵)은 핸드폰을 꺼내 든다.



빵            내다. 이리 다 모이라 캐라. 니도 오고. (직원들 수군거린다.)  
(나영을 가리키며) 니, 뭐 부당해고라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다.  
알았나?

*제일서점직원들과 빵아들이 등장.*

빵            김지숙이는 오늘 여를 관두겠다고 했다. (제일서점 남직원에게) 니가 오늘부터 여를 말아라.  
알겠나? (빵아들에게) 니도 일단 정리 될 때까지 여기 붙어 있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서나영이는 내일부터 파주 창고 정리하러 가고.

나영            ...

*빵. 나간다.*

남직원        김지숙씨! 갑자기 왜 관뒤요? 나영씨, 왜, 무슨 일인데, 이거야? (나영에게 목에다 손을 가로  
지르며 찔렀냐고 물어본다. 나영, 말이없다. 남직원, 여직원들 술렁술렁)

빵아들        다른 직원들은 제 자리로 가요. 오늘 아빠 심기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심들하고.  
나영씨, 내일 나영씨 휴무니까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 볼게. 김지숙씨도 얘기 좀 합시다.

김지숙        할 얘기 없어요. 퇴직금이나 잘 챙겨주세요.  
(나영에게) 미안하다.

*김지숙 나가려고 하자 모두들 말린다. 말리는 직원들을 뒤로 하고 김지숙 나가버린다. 빵아들 따라간다.*

나영            언니! ( 나영도 따라 나간다.)

남직원        (저들을 보고, 여직원에게) 조용없어. 빵이 자르겠다고 생각한 게 뭐 오늘 일이겠어? 여직원  
중에 호봉도 제일 높겠다, 초창기 멤버니까 알 거 모를 거 다 아시는 몸이라 빵이 불편했던 거  
아니겠어?

여직원        왜 그랬어요? 좀 참지.

나영            참는 게 지겹지도 않니?

## 8장

6장 7장과 같은 날 늦은 밤.  
주인할매의 전화 목소리.

**주인할매**      돌이가 많이 아파야. 후딱 와서 병원에 싣고 가야 쓰겠다. 뭐시여? 인천서 여기가 얼마나 된다고... 늙은 애미가 사정하느니 뭐시여, 일일구? 이 호로 자식 같은 놈. 다시는 나 찾을 생각하지 말어.

주인할매가 희정엄마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희정엄마**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주인할매**      거시기, ... 돌이가, 돌이가 안 좋아.  
**희정엄마**      무슨 걱정이예요. 내 등이 한발이야.

희정엄마, 돌이를 업고 뛰쳐나간다. 할머니 울면서 따라간다.  
골목길. 동네 전봇대에 플랜카드 붙어 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환영, 장애인도 가능'  
술롱고의 주인집 사내와 주인집 사내의 친구 조씨가 술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주인사내는 전봇대 앞에서 오줌을 본다.

**주인집사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씨팔, 재혼도 환영이고 장애인도 가능하다. 세상이 미쳤구만.  
**조씨**            술집에서 술 따르는 년들만 다 나오라고 해. 돈 주고 산 베트남 여자보다야 한국여자가 낫지, 안 그래? 이러다 아옴에프 또 오지.  
**주인집사내**    물건은 죄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여자는 또 베트남에서 사온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세상이야.

주인집사내와 조씨가 플랜카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영이 술에 취해 골목 끝에 나타난다.  
술롱고가 이어서 등장.

**술롱고**        나영!  
**나영**          안녕, 술롱고. 오늘은 아침에도 보고 밤에도 보네. (양양말로)  
**술롱고**        두 번 봅니다.  
**나영**          술롱고도 늦었네. 난 술 마셨는데, 술롱고는 뭐했나?  
**술롱고**        공장 갔다 왔어요. (사이)  
**나영**          ...  
**술롱고**        (사이) 요샌 나영 빨래 잘 안 보여요.  
**나영**          빨래? 빨래할 시간이 나야지 빨래 하죠. 그래야, 술롱고 얼굴도 볼 텐데.

나영이 비틀거리며 걸자 술롱고가 뒤따라 걷는다.

**술롱고**        옷 얇아요. 춥겠다.  
**나영**          나 오늘 종일 몸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안 추워요. 지금도 불이 나서 꺼지질 않아요.  
(나영의 얼굴에 눈물이 묻어있는 걸 술롱고가 발견한다)  
**술롱고**        눈물로 불 끄는 중이구나.

주인집사내와 조씨가 나영과 솔롱고를 발견한다.

주인집사내    이게 누구야, 몽고 총각 아니야.

솔롱고        예.

조씨           몽고?

주인집사내    왜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옥탑에 네팔, 방글라데시, 몽고 애들 와서 산다고.

조씨           조선족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몽고도 우리랑 똑 같이 생겼네. 아가씨도 몽곤가?

솔롱고        아니요, 옆 집 사람입니다.

주인집사내    아니, 아가씨가 술 많이 먹었네. 몽고랑 같이 먹었나? 이봐 아가씨, 지금 시골에서 총각들이 여자가 없어서 베트남에서 돈 주고 사 온다는데 말이야. 몽곤가, 몽골인가 이런 애들하고 놀아서 되겠어?

나영           내가 누구랑 놀던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여자가 물건이야?

돈을 주고 사고 말게. 빵 같은 자식!

조씨           야, 뭐? 빵 같은 자식? 놀구 있네.

주인집사내    똑같은 것들이네, 이것들이. 내가 이래서 이런 것들은 세 안 놓는다고 했는데.

야, 너 방 빼!

솔롱고        아저씨, 안돼요.

나영           뭐야, 진짜 빵이잖아. 주인이 방 빼란다고 방 빼는 게 말이 돼? 사장이 관두란다고 관둬야 되고, 주인이 방 빼란다고 방 빼면 법은 뭐 놓고 있는 줄 알아요?

조씨           우리 사람도 직장 못 구해서 놀구들 있는 판에, 저런 것들 위해서, 빌어먹을 법은 무슨 법이야! 그리고 너, 불법체류지? 지금 여기 온 지 오래 된 애들은 다 지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봐 조씨, 경찰 불러.

솔롱고        아저씨, 봐주세요.

조씨           봐주긴 뭘 봐줘? (솔롱고의 머리를 툭툭 친다) 불법체류들은 죄다 지들 나라로 보내야 돼.

나영           (조씨를 밀치며) 어떻게 인간이 불법일 수가 있어요? 때리지 마세요!

조씨           이 년이 돌았나? 뭐?

나영이 조씨를 밀치자 조씨가 나영의 머리채를 잡는다.

솔롱고는 나영의 머리채를 잡은 조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주인집 사내와 조씨가 솔롱고를 때려서 쓰러뜨린다.

주인집 사내와 조씨는 솔롱고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자 도망가듯 사라진다.

나영           솔롱고! 괜찮아요?

솔롱고        ...

나영           왜 맞고만 있어요?

솔롱고        경찰서 가면 안돼요.

## #6.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솔롱고)

참아요, 외로워도 나를 기다리는 가족 때문에  
참다 보면 가끔 잊어요, 우리도 사람이란 사실 잊어요.

반말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  
주먹 쥐고 일어서고 싶지만  
고향 형제 때문에  
한국 오느라 진 빚 때문에  
참아요, 참다보면 사람들은 잊어요. 우리도 사람이란 사실 잊어요.

(나영)

참았어요. 외로워도 달리 기댈 곳이 없기에  
잊었어요. 참다 보면 가끔 잊었어요. 나도 사람이란 사실 잊었어요.  
반말하고 쉽게 욕하고 짹대고, 쉽게 해고하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욕하고 싶었지만  
이번 달 방값 때문에  
어딜 가도 마찬가지란 생각 때문에  
참았어요. 참다보면 잊어요. 나도 꿈을 가진 여자란 걸

(나영, 솔롱고)

우리도 사람인데. 때리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모른 척 살죠. 모른 척 눈감고 살죠.  
모른 척 눈감고 귀 막아도 우린 숨쉬며 살죠.  
같은 하늘 아래 아프고 눈물 흘리며

우리도 사람인데  
때리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나는

*솔롱고와 나영이 골목 귀퉁이로 사라진다.*

## 9장

다음날, 햇볕 좋은 낮. 주인집 할매가 빨래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

주인할매      나갔다 오는 거여?  
희정엄마      좀 괜찮아요?  
주인할매      어저께는 죽을 것처럼 열이 오르드만 병원 갔다 와서는 종일 자네. 자네는 좀 어떠?  
희정엄마      저도 어제 업고 뒀 때는 몰랐는데, 어휴, 어깨가...  
주인할매      고생했네  
희정엄마      아유 뭘요.

희정엄마는 옷을 걷고 주인할매가 빨고 있는 대야 안으로 들어간다.

주인할매      음마, 이 사람이 왜 이런다냐? 안 그래도 뒀야. 날도 찬디.  
희정엄마      빨래는 이렇게 꼭꼭 밟아야 때가 지죠. 할머니, 때마다 빨래 걸어주시고 고마워요.  
                방값 내라고 소리만 안 지르면 우리 할머니 이쁘다니까. (사이)  
주인할매      방값 내야제, 희정엄마. 이번 달에 똥 찢으께 한 사람에 5000원씩 만원이여잉.  
희정엄마      (장난스럽게 옆구리를 치며) 알았어요. 그런데 구씨 똥값까지 내라는 건 좀 너무했다.  
주인할매      (희정엄마의 장난을 받아주며) 싫으면 방 빼!  
희정엄마      아유, 정말!

희정엄마와 주인할매는 같이 웃는다.

주인할매      어저께는 참말로 고마웠네. 진짜 고맙네, 이 사람아.  
희정엄마      정 그렇게 고마우면 방값이나 좀 빼줘요.  
주인할매      좋다. 구씨 똥값은 빼, 그라은.  
희정엄마      고마워요. (사이) 겨울인데 이불 빨기 힘들죠?  
주인할매      그래도 어쩔 것이여? 저년 뉘지기 전 까진 내가 힘 써야제.  
희정엄마      ...  
주인할매      말 안 혀도 알고 있었제? 저 방에 내 딸년 누버 있는 거. 요로코롬 사는 사람들, 골목에 내 논 빨래나 옥상에 널어 논 빨래만 봐도 저 집 속사정 속속들이 다 알제.  
                (사이) 내가 헐 말은 아니지만, 희정엄마! 이때껏 희정엄마 방에 들락날락한 사내 중에 구씨가 제일인 거 알지? 사내가 고로코롬 좋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받아줘.  
희정엄마      그렇긴 한데요. 이 나이에 또 결혼해서 시집살이에다 남의 자식까지 키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때껏 혼자서 잘 살았는데...  
주인할매      구씨하고 만나기만 하면 허구헌 날 썸박질해서 글제, 속궁합은 그만이제?  
희정엄마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주인할매      어찌것어? 듣기 싫고 보기 싫어도 옆 집 베갯머리 공사가 다 뵈고 들리는데.  
                근디 구씨가 좀 뜸허네.  
희정엄마      그만 살재요. 지난 주에 선 봤대요. 자기 말로는 애들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랬다지만, 맘에 없는 선을 왜 봐.  
주인할매      말만 그럴지 구씨 맴이야 어디 그럴것어. 구씨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거시기허은, 구씨를 잘 구슬려가고 그냥 요로케라도 살어. 젊은 과부, 거시기 하나 있는 거시 어디 송이여?

**희정엄마** (사이)발시려. 할머니, 나이도 있는데, 찬 물로 이러지 말고 뜨거운 물로 빨어요. 발이 그냥 다 빨갈네. 할머니, 이러면 풍걸려. 뜨거운 물로 행궤요. *(희정엄마가 주인할매를 대야 밖으로 민다)*

**주인할매** 잘, 생각해. 인연이 쉽게 오는 게 아니여.

**희정엄마** ...

**주인할매** 영감이 똥 싼 이불 빨 때만 혀도 물이 차가고 심들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디, 나도 이제 다 늙었는갑네.

*주인할매와 희정엄마는 빨래 대야를 들고 주인할매 방 안으로 들어가 물을 버린다.  
양수기 돌아가는 소리. 주인할매와 희정엄마는 다시 복도로 나온다.*

**희정엄마** 돈 번 걸로 다 뭐해요. 죽을 때 갖고 가게? 그러지 말고 세탁기 하나 사요.

**주인할매** 돈 읍써.

*사이. 돌이 소리가 난다. 주인할매는 얼른 가 보고 온다.*

**주인할매** *(눈시울이 붉다)* 나보다 돌이가 먼저 디져야 할 텐디. 사람 숨이 은제 어뜨케 될지 모르는건디, 희정엄마 내가 말이어. 흑시라도 말이어 ... 음마 내가 뭘 말을 한다냐. 내 자식도 있는디.

**희정엄마** 인천에 산다는 아들 말이에요?

**주인할매** 있으나, 마나여. 그 놈 여기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 아녀.

**희정엄마** ...

**주인할매** 그 놈은 죽은 영감 아들이여. 그 영감, 풍 맞아 쓰러지기 전까지 바람을 피웠지, 저 방에 누워 있는 년은 다른 영감 딸이여. 나도 핏김에 서방질이라고 잠깐 짬 사내를 만났어. 아들놈이 그걸 알고 날 지 애미 취급을 안 하네. 돌 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새끼데, 그 놈이 돌이를 동생 취급을 안 하네. 저 년 뉘치기 전까진 내가 목숨줄 붙들고 있어야 할텐디... *(한숨)*

**희정엄마** 할머니도 참. 오래오래 살면 되지.

**주인할매** 내가 희정엄마한테 별소릴 다 헛네. 다 잊어. 알았제? 해 떨어지겠다. 물 받아서 마저 행구자.

*나영 등장.*

**주인할매** 오늘 쉬는 날이여?

**나영** 예.

**주인할매** 밥은 머꼬 땡기는거여?

**나영** 예.

**희정엄마** 나영이, 어디 아퍼?

**나영** 아니에요.

*나영은 자기 방문을 돌리는데 자꾸 열쇠가 헛돈다. 나영은 방문 앞에 주저앉아 운다.*

**희정엄마** 아이구, 나영이! 무슨 일 있어?

*주인할매는 자신의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한 잔 가지고 나와서 나영에게 준다.*

나영은 그 물을 받아 마신다.

**주인할매** 인자 좀 괜찮어?

**희정엄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혹시... 애 뒀어?

**주인할매** 으미, 물을 걸 물어. 말하고 싶음 하겠제, 그냥 내비둬. 아가씨(처녀), 괜찮것어?  
심들은 우리 방 아랫목에 누워서 등 지지고 자든가. 지금 아가씨 방 보일라 키르는 한참  
있어야 되잖어.

**나영** 고맙습니다.

나영이 다시 울기 시작한다. cue #11.

**주인할매** 울고 싶으므는 울어야제. 여자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어잉. 울고 싶을 때 울기라도 해야제.

**나영** 어제 사장이 멀쩡히 일하던 선배 언니를 잘라서 한 마디 했더니... 서점에서 책 팔던 절더러  
파주에 있는 창고 가서 책 먼지나 털래요. 오늘 회사에 가서 싫다고 했더니 관두래요.

## #7. 슬플 땐 빨래를 해

(희정엄마)

울지마, 나영아! 난 열 다섯에 공장 생활 시작했다. 삼교대도 아니고 이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밤 코피 쏟으며 일 했어. 윗대가리 맘대로 휘두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다시 따지러 가지. 응?

(희정엄마)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니 눈물도 마를 거야.  
자 힘을 내. 어서!

(주인할매)

난 말이어. 울고 싶을 땐 빨래를 혀.  
푹 맞아 누운 영감 똥 기저귀 빨았을 때도, 서른이 다 된 딸년 똥기저귀 빨 때도  
한숨이 폭하고 나오지만  
빨래를 하다보면 힘이 생기제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것들!  
하지만말여 많이 울지는 말아!

(주인할매)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여.  
시간이 흘러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니 눈물도 마를 거야.  
자 힘을 내.

(나영)  
억울하구요. 화가 막 나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희정엄마, 주인할매)  
슬픔도 억울함도  
같이 녹여서 빠는 거야.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다보면 힘이 생기지.  
깨끗해지고 잘 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말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나영)  
월급은 쥐꼬리  
자판기 커피만 뺐았죠.  
야간 대학 다니다 그만둔 지 오래.  
정신없이 흘러 간 이십대  
월 하고 살았는지, 월 위해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주인할매 희정엄마)  
월 해야 할 지 모를 만큼 슬플 땐 난 빨래를 해  
돌이 기저귀 빨 때/ 구씨 양말 빨 때  
내 인생이 요것 밖에 안 되나 싶지만  
사랑이 남아 있는 나를 돌아보지.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우릴 돌아보지.

(주인할매 희정엄마 나영)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잘 말라서 기분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희정엄마) 난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많이 할 거야.  
(주인할매) 난 건강하게 살 거여.  
(나영) 난 지치지 않을 거야.

자 힘을 내 어서.

|      |  |
|------|--|
| 희정엄마 | 나영인 밤에 뭐해? 애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고. 밤에 불 켜놓고 뭐 하는 것 같던데. |
| 나영   | ...저, 그냥 책 읽어요.  |
| 희정엄마 | 좋겠다. 아직 그런 여유도 있고.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하나?                     |
| 나영   | 아직 생각 없어요.   |
| 희정엄마 | 아유, 월 빼고 그래. 내가 다 봤는데.                                 |



나영           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희정엄마      어머, 세상에! 옆집 사는 총각이랑... 여기 이사 와서 눈 맞은 거야? 너무 낭만적이다.  
                  혹시 알던 사이야?  
나영           ...

*나영과 희정엄마가 이불을 양쪽 끝에서 잡고 돌려 찢다.  
솔롱고와 낯심이 굴 한 봉지를 들고 등장.*

낯심, 솔롱고   안녕하세요?  
솔롱고        저는 옆집 옥탑 사는 솔롱고입니다. 여기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낯심이 주인할매에게 굴 봉지를 내민다)*  
희정엄마      *(주인할매 귀에 대고)* 저 총각 맞죠?  
나영           솔롱고!  
주인할매      뭔 일이며, 총각!  
솔롱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주인할매      고맙긴. 총각 주인집 양반이 잘 못 한 거제. 나야 그냥 말 한 마디 해준 것뿐이고.  
                  일이 잘 되서 다행이네.  
희정엄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주인할매      아침 나팔에 박스떼기를 주우러 나갔는디, 글씨 골목서 저 총각 주인집 양반이 저 총각한테  
                  방을 빼라고 난리잖여. 기한도 안 지났는디.  
낯심           고맙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방 빼라고 해서 솔롱고는 일하러 못 나갔는데 할머니가  
                  주인아저씨한테 썩을 놈 이렇게 막 욕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주인아줌마가 미안하다고 솔롱고 약 줬어요.  
주인할매      아이고 그 놈 말 잘 하네.  
낯심           고맙습니다.  
주인할매      안주인이라도 사람 노릇한게 다행이네. 근디 총각들은 어디서 일한다?  
솔롱고        공장은 못 나가구요. 동대문에서 짐 날라요.  
주인할매      그러도 다행이구만.  
솔롱고        *(나영을 한 번 쳐다본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할매      잘 가, 총각들

*나영은 솔롱고가 지하방에서 나갈 때 따라 나선다.*

나영           다행이에요, 정말.  
솔롱고        아파 보여요, 괜찮아요?

*희정엄마와 주인할매가 다 찢 이불빨래 다라를 들고 나온다.*

솔롱고        이거 어디나 날어요? 제가 날게요.  
희정엄마      제대로 말리려면 옥상에다 날어야겠는데...

*솔롱고가 빨래 대야를 받아 든다.*

주인할매      꽤안혀, 이리 내.

**솔롱고** 할머니, 이렇게 무거운데 제가 옥상까지 들고 갈게요.  
**낫심** 저두요.  
**희정엄마** 총각이 고맙네. *(낫심을 잡아 끌며)* 총각, 총각은 어디서 왔수?  
**낫심** 예? 나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희정엄마** 나랑 고향 이야기 좀 더 해, 응?

*솔롱고가 빨래 대야를 들고 움직이자 나영이 앞장선다.*

**나영** 이쪽이에요.

*솔롱고가 나영의 뒤를 따른다.*

**희정엄마** 둘이 보기 좋네.  
**주인할매** 보기 좋네잉.

*옥상. 나영과 솔롱고는 같이 이불을 빨랫줄에 낸다. 솔롱고가 나영의 손을 잡는다.*

**나영** 걱정했어요. 별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솔롱고** 걱정했어요. 웃는 얼굴 예뻐요. 우는 얼굴 내가 슬퍼요.

*나영이 운다.*

**나영** 나보다 솔롱고가 더 힘들 텐데, 나 때문에...  
**솔롱고** *(나영의 어깨를 감싸며)* 우는 얼굴 내가 슬퍼요. 울지 말아요. 웃는 얼굴 예뻐요.

사이

**솔롱고** 힘내요.  
**나영** 우리 힘내요.

*나영은 솔롱고가 잡은 손에 자신의 나머지 손을 포갠다  
사이.*

**나영**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요.

*솔롱고가 나영의 볼에 입맞춤 한다. 빨래가 바람에 날린다.*

*눈이내리고, 다시 꽃이 핀다.*

## 10장

초봄. 집앞 골목.

희정엄마와 나영은 이삿짐을 꾸린다.

희정엄마는 짐을 트럭에 싣고, 나영은 솔롱고와 함께 이삿짐을 솔롱고가 사는 옥탑으로 옮긴다.

이삿짐아저씨 목소리 여기 차 오래 대기 힘들어요, 아줌마.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갑시다.

주인할매 내가 희정엄마하고 나영이한테 면목이 없네. 이사 비용도 다 못 챙겨주고, 아직 추운데 방을 빼라고 해서.

희정엄마 아드님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사 온다는 걸 어찌겠어요.

주인할매 꿀 보기 싫다고 지 애미랑 동생 본척만척 하더니 잘 됐지 그 놈.

희정엄마 할머니, 나영이 살림 차린다면서요? 아유, 연애면 모를까? 몽골총각이랑 살림까지...

주인할매 아예 같이 사니까 잘된 거지. 외로운 서울 살이 살붙일 사람 하나 있는 거 그거 나쁘지 않은 거지.

희정엄마 그러면, 몽골총각이랑 같이 살던 그 낯심 총각은?

주인할매 지난 겨울에 잡혀서 자기나라로 쫓겨 갔대.

나영 등장.

나영 언제 또 보죠?

희정엄마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영인 줄겠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눈치 보지 않고 한 데 살 용기가 있어서.

주인할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여기 잠깐만 기돌리고 있어. (슈퍼로 간다.)

나영 구씨 아저씨 안 오세요?

희정엄마 구씨 안 와. 내가 방 빼게 생겼다고 하니까 진짜 같이 살자는 거야. 내가 싫다니까 빼진 거 있지.

나영 같이 사시지 그러셨어요.

희정엄마 빼져도 지가 한 달을 가겠어? 그러다 또 내 방에 놀러 오겠지. 아직은 이렇게 살래. 이제와서 애 키우고 살림하긴 좀 심심하잖아. 난 내 방 하나 차지하고 사는 게 속편해.

나영 어디로 가세요?

희정엄마 동대문하고 가까운 데야. 그 쪽이 방도 싸고. 회사는 어떻게 됐어?

나영 일단은 파주에 있는 창고에 나가고 있어요. 그냥 관두면 실업급여랑 재취업교육도 못 받는데요.

실업자 되기도 힘들네요.

희정엄마 고생이네.

이삿짐아저씨 다 챙기셨으면 이제 갑시다.

주인할매가 나영과 희정엄마에게 비닐봉투를 하나씩 건넨다.

주인할매 자, 이거 하나씩 받아.

희정엄마 이게 뭐예요? (비닐에 들어 있는 세제를 보고) 월 이런 걸 다 주세요.

주인할매 이별 선물로 세제가 어색하긴 해도 둘 다 새 집에 새 마음으로 이사 가는 길이니깐 내가 선물하는 거야. 잘 살어들. 나영인 종종 볼 테지만.

나영 고맙습니다.

희정엄마      놀러 올게요.  
 주인할매      오지 마. 안 와도 돼. 거기 가면 또 거기 사람하고 정붙이고 살아야지.  
 희정엄마      할머니 건강하세요, 따님도요. 나영이 잘 살아.  
 주인할매      잘 가!  
 나영            안녕히 가세요!

*희정엄마 이삿짐 트럭이 있는 곳으로 퇴장. 주인할매가 봉투를 꺼낸다.*

주인할매      이걸 보증금이고 또 이걸 축의금이야.  
 나영            결혼식도 안 하는데...  
 주인할매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이 늙은이 축의금 정돈 받아도 돼.  
 나영            고맙습니다.  
 주인할매      그래 가봐. 옥탑에서 총각 기다린다.  
 나영            네. cue #12.

*나영은 솔롱고가 기다리는 옥탑으로 간다.*

*희정엄마와 이삿짐 아저씨가 놓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 부산스럽게 들어온다. 할머니와 함께 퇴장.*

솔롱고        나영, 이걸 다 빨아요? 새 걸로 사요.  
 나영            빨면 새 거 되는데 왜 또 사요. 빨리 돈 모아야죠.  
 솔롱고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나영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솔롱고        아기도 낳고... 나영, 나 나영한테 잘 하고 싶어요.  
 나영            그럼, 투정하지 말고 어서 빨아요. (양양말로)  
 솔롱고        네~

*나영과 솔롱고는 빨래를 짜서 툄툄 툄어서 빨랫줄에 낸다. 빨래가 바람에 날린다.*

## #8. 서울 살이 몇 헵가요? 2

(나영, 희정엄마, 주인할매, 솔롱고와 동네 사람들)

서울 살이 몇 헵가요?

서울 살이 몇 헵가요?

언제 어디서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하나요?

서울 살이 몇 헵가요?

서울 살이 몇 헵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희정엄마)

서울 살이 십년, 네 번째 적금통장 해지

남편 위해

자식을 위해,

또 한 번은 애인을 위해 방을 옮겼죠.

이제는 날 위해 내가 살기 좋은 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주인할매)

서울 살이 45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 마음에 두고 사나.  
그냥 마음 가는 데로 살아들.

(나영)

서울 살이 육년, 일곱 번째 이사  
낡은 책상, 삐걱이는 의자,  
보지 않는 소설책, 지나간 잡지,  
고물 라디오, 기억이 가물가물한 편지  
그런 것들은 버리고 와요.  
버리고 버려도 세간 살이, 집세, 내 나이 늘어가지만  
내가 만날 사람도 함께 늘어 갑니다.

(슬롱고)

서울 살이 육년, 첫 번째 사랑  
내가 들었던 말  
돈 없다, 빨리해라, 병신새끼  
내가 배운 말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슬롱고 나영)

나 너 우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그대 눈물, 그대 웃음이 담긴 사연 새겨질 방 찾아 떠돈 시간 얼마나 되나요?  
그대와 나 여기 살아 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들  
그대 잃어버린 꿈 그대 두고 온 꿈  
다시 꾸어요  
다시 꾸어요

(모두)

서울 살이 여러 해, 당신의 꿈 아직 그대론가요?  
나의 꿈 닳아서 지워진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빨래처럼 흔들리다 떨어질  
우리의 일상이지만  
당신의 젖은 마음  
빨랫줄에 널어요

바람이 우릴 말려 줄 거예요.  
당신의 아픈 마음  
꼭 짜서 널어요  
바람이 우릴 말려 줄 거예요  
당신의 아픈 마음  
털털 털어서 널어요  
우리가 말려 줄게요

끝.